

2022학년도 교양 음악교육 실태 연구: 서울 소재 12개 대학을 중심으로

박지영(서울대학교, 강사), 손민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 서론

“음악과 예술은 개인이 기쁨을 높일 수 있는 삶,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더 낮고, 포용적인 시민 사회를 깨닫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그린(Maxine Greene 1917-2014)의 주장처럼 음악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안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¹⁾ 요르겐센(Estelle R. Jorgensen)은 음악 교육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목표를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연계시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계승하고 공공의 믿음을 배양하는 음악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것, 둘째, 음악적 믿음과 과거의 실습을 청년들에게 계승(transform)하는 것, 셋째, 음악의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것, 넷째, 사회에 기여하는 것, 다섯째, 개인의 경험과 표현을 풍부하게 하여 인간의 기쁨을 높이는 것이다.²⁾ 다양한 음악을 체험하고 익히는 것이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쁨을 높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슐러(Scott Schuler)는 음악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음악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Independent Music literacy)이라고 주장한다.³⁾ 독립적 음악 능력은 “새로운 음악의 창조(즉흥 연주, 작곡), 기존 작품을 해석하여 연주, 소비자나 관객으로서 음

+ 교신저자

- 1) Estelle R. Jorgensen, “The Aims of Music Education: A Preliminary Excursion,”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36/1 (2002), 43 재인용.
- 2) Jorgensen, “The Aims of Music Education,” 32-48.
- 3) Scott C. Schuler, “Music Education for Life: Five Guiding Principles for Music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97/3 (2011), 8.

악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responding)하는 훈련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데,⁴⁾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음악을 창작하고 즐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이 풍부해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 부연한다.⁴⁾

독립적 음악 능력은 대학의 음악 교양교육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개인은 교양 교육을 통해 전공 이외에 음악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⁵⁾ 다양한 장르 또는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체험함으로써 흥미와 호기심을 촉발시켜 지속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음악활동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학습과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의미미한 음악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교양 교육에서 음악 과목이 개설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며, 교양 음악 과목수와 개설장소는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의 교육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⁶⁾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의 교양 음악 강좌 현황을 조사한 논문 지표들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에는 극소수 대학에서 〈음악 감상〉, 〈음악사〉, 〈음악 개론〉 중 한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다가 대학에 자율권이 주어진 1989년 이후 교양 음악 과목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⁷⁾ 2000년대 이후 국가의 교양 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교양 음악 과목은 〈음악감상〉, 〈음악사〉 등 기본 과목 외에 〈대중음악〉, 〈음악경영〉, 〈음악치료학〉, 〈재즈의 역사〉, 〈한국 음악의 역사와 감상〉 등으로 더욱 세분화·다양화되었다.⁸⁾ 또한 타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교육,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교육에 예술을 포함시킴으로써 음악을 타 학문과 연계시킨 융복합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 교육학자들이 제시한 교양 (음악)교육의 목표도 “사회가 원하는 보편성을 인식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전인교육과 통합적 시각으로 삶을 통찰하고 설계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인을 위한 교육,⁹⁾ “학생들에게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과 연계하여 음악을 생각할 수 있고 음악을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비평적 사고를 통해 체험하며 즐기는 태도를 기르는 것”¹⁰⁾

4) Schuler, 앞의 글, 8.

5) 장지원, “21세기 교양 음악수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10/3 (2012), 183.

6) 나상미, “일반대학에서의 교양음악교육 실태조사연구(서울지역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9.

7) 나상미, 위의 글, 18; 박지연, “대학에서의 교양음악교육 현황 및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4-38.

8) 장지원, “21세기 대학 교양 음악수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187; 나상미, “일반대학에서의 교양음악교육 실태조사연구(서울지역 중심으로),” 18-35.

9) 장지원, “21세기 대학 교양 음악수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185.

10) 장지원, 위의 글, 187 재인용.

등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대형 강의실과 대규모 수강인원이 주를 이루는 교양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음악 교양 교육 역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온라인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소통, 온/오프라인, 실시간/비실시간의 융복합 블렌디드 러닝, 실시간 온라인 수업 진행” 등 대면 수업을 대체할 다양한 온라인 시행 방안들이 신속하게 마련되고 실행되었다.¹¹⁾ 하지만 ‘소리’ 전달이 중요한 음악교육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소리 끊김, 지연 시간(latency)에 인한 사운드 딜레이를 유발하여 수업의 집중력을 저하시켰고, 교강사와 학습자간의 즉각적 소통, 공감대 형성에 제약이 생겼다.¹²⁾ 코로나 직후 음악대학 비대면 학습 실태를 연구한 안성희는 ‘직관적 교류 결여’와 ‘수업의 몰입도 결여’를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¹³⁾ 특히 그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합창과 연주 수업에 가장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였고, 개인별로 제출된 수행 과제를 확인하거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논한다. 일부 대학은 감염 우려, 비대면 수업 시 수업의 참여도와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합창 과목 등 공동 소리 제작을 목표로 하는 실기 수업의 개설을 유보함으로써 교양 음악 개설 과목 수가 한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코로나 종식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수업이 대면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대학에서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자연스러워졌고, 오프라인을 대체한 대규모 사이버 강의도 점차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교양 수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2022학년도 교양 음악 교육의 현황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 결과를 2008학년도 교양 음악교육 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비교 대상연도를 2008학년도로 선정한 이유는 대학 교양 음악 교육에 대한 연구 데이터와 지표가 가장 많이 제시된 년도이기 때문이다. 본론 첫 장에서는 2022학년도 12개 대학교의 개설과목 수, 학점, 주제 등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에서 분석했던 2008년의 상황과 비교할 것이다. 본론 두 번째 장에서는 교수진이 어떠한 가치에 방점을 두고 음악 교양 교육을 운영하는지 엔비보(NVIVO)를 활용하여 강의 개요서를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 분석 결과를 위하여 각 교과목의 강의 개요와 학습

11) 이수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을 위한 온라인 음악교육 연구 고찰,” 『예술교육연구』 19/3 (2021), 191.

12) 이보림, “대학 교양교육을 위한 비대면 음악비평 교육프로그램 개발-음악과 언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1 (2021), 149-161.

13) 안성희, “코로나 19 사태로 바라본 음악대학 교육의 실태 보고-비대면 학습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협회학회 문화산업연구』 20/3 (2020), 111.

목표를, 요르겐센이 제안한 음악의 다섯 가지 사회적 역할과 연계시켜 코딩할 것이다. 2022년과 2008년 교양음악 개설 상황은 기존 논문들의 데이터와 각 학교의 수강편람을 활용하였다.¹⁴⁾

2. 서울 소재 12개 대학 교양 음악 과목 개설 현황 및 변화

2.1. 12개 대학 교양 음악 과목 개설 현황

본 절에서는 2022학년도 1-2학기 서울 소재 12개 대학 교양 음악 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 12개 대학의 2022학년도 1-2학기 교양 선택 영역 중 음악 관련 개설 과목을 검색하였다.¹⁵⁾ 검색과정에서 누락되는 과목이 없도록 ‘음악’, ‘국악’, ‘한국음악’, ‘합창’, ‘연주’ 등과 같은 주제어를 검색창에 따로 입력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서울 12개 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1-2학기 총 80과목의 교양 음악 강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2 참조). 이는 2008학년도 1-2학기 총 47과목과 비교할 때 비약적 증가라 할 수 있다.

검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전반적 사실은 첫째, 교양 음악 과목은 1-3학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대의 7개 실기 과목이 모두 1학점이었고, 전체 과목 중 68%에 해당하는 52과목이 3학점으로 구성되었다. 과거 대부분의 교양 음악 과목이 2학점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현재에는 3학점으로 구성된 교양 음악 과목 수가 많아짐에 따라 교양 음악 과목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이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수업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22-2학기 대다수 교양 음악 과목은 대면수업으로 정상화 되었다. 코로나 19의 직접적 영향 하에 있던 <합창>도 전면 대면수업으로 운영되었다.¹⁶⁾ 일부 과목만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22-1학기 서강대의 <세계음악과 문화의 이

14) 나상미, “일반대학에서의 교양음악교육 실태조사연구(서울지역 중심으로),” 27-35; 박지연, “대학에서의 교양음악교육 현황 및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24-38.

15)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 학교 선정 시 되도록 많은 대학들의 자료를 조사하여 취합하려고 하였으나 지방 거점 국립대를 포함하여 일부 대학의 경우 강의 편람이나 시간표 조희가 재학생들로 제한됨에 따라 데이터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학교 측에 공문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대학 간 학점 교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이들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16) 서강대 <대학 합창>은 코로나 이전인 2017-2018년에는 개설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2년 2학기까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는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건국대의 <일감호에서 듣는 클래식음악> 중 일부 분반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홍익대의 <현대음악의 이해>의 1분반, <사운드와 컴퓨터 음악>은 사이버 강좌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였다.¹⁷⁾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교육부의 2021학년도 2학기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 지침(21. 06. 24)에 따라 2022학년도 대학 교양수업 역시 대면 수업으로 정상화된 것이라 여겨진다.¹⁸⁾ 셋째, 개설된 교양 음악 과목 대부분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영어 강의도 일부 제공되었다. 5.2%에 해당하는 서울대의 <세계음악>, <한국음악개론>, 이화여대의 <음악과 건강>, 서강대의 <대중음악>이 영어 강의라 명시되었다. 서울대의 영어 강의는 국악과의 외국인 교수가 진행하였다.

2.2. 2008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교양 음악 과목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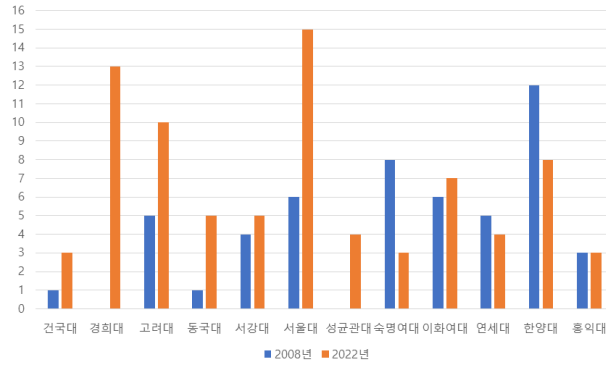
<그림 1>은 교양 음악 과목 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22학년도의 교양 음악 과목 개설 현황을 2008년과 비교한 것이다. 각 대학마다 재학생과 교강사 수, 교육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12개 대학교의 교양 음악 과목 개설 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할 수 있지만, 대학별 개설 과목의 증감률을 비교하는 것은 대학의 교양 음악 교육에 관한 인식이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반영하는 일례로서 유의미하다 하겠다. 각 대학의 왼쪽 막대그래프는 2008년 개설 과목 수를, 오른쪽 막대그래프는 2022년 개설 과목 수를 나타낸다.¹⁹⁾

17) 홍익대의 경우, 2008년에도 <고전음악의 이해>와 <현대음악의 이해>가 사이버 강좌로 명시되었다. 2022-2학기에는 <현대음악의 이해> 1분반만 사이버 강좌로 운영되고 있었다.

18)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8300
[2022년 12월 15일 접속.]

19) <그림 1>의 12개교 중 성균관대와 경희대의 2008년 개설 상황은 막대그래프로 표시되지 않았다. 이 2학교는 개설 강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2008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림 1> 서울 12개교의 교양 음악 과목 개설 수의 변화:
2008년-2022년

먼저 <그림 1>의 대학별 개설 과목 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첫째, 같은 과목이 분반을 나누어 운영되는 경우 한 과목으로 간주하였고, 둘째, 정규학기(1-2학기 모두 해당)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교과목 운영 방식은 대학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다양한 주제의 교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특정 교과목을 여러 분반으로 나누어 개설하는 대학도 많았다. 후자의 경우 개설 교과목 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국대의 <클래식 음악여행>(4분반), 서울대의 <음악과 사회>(3분반), <음악의 원리>(2분반), 숙명여대의 <프랑스 뮤지컬이해>(2분반), 한양대의 외국인 대상 <전통음악감상>(3분반), 홍익대의 <고전음악의 이해>(3분반), <현대음악의 이해>(3분반)는 두 개 이상의 분반으로 개설되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서 운영해왔던 교양 음악 관련 ‘기초과목’들이나 각 대학에서 비중을 두는 과목들이 여러 분반으로 개설되었고, 교강사, 강의 시간표 등이 다르게 배치되었다. 특히 한양대의 <전통음악감상>과목은 한국 학생(1분반)과 외국인 학생(2분반)을 위한 분반이 따로 개설되었는데,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들의 한국 음악과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만큼 분반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되었지만, 일부 과목은 1-2학기 중 특정 학기에만 개설되었다. 경희대는 12개 대학 중 유일하게 학기 별로 다른 과목이 개설되었다.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에는 한 학기에만 개설되는 교과목이 있었다. ‘실기’교과목 중 숙명여대의 <타악 실습 기초 I · II>, 서울대의 <교양 색소폰 연주 I · II>는 명목상 과목명이 I · II로 구분될 뿐 동일한 내용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고려대의 <중급음악이론>은 <초급음악이론>이나 유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연이어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년 연속

과정의 교과목이 더 많이 개설된다면 수강생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가 지속될 것이며, 연속 수강을 통해 슬러가 제안한 독립적 음악 능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의 2022학년도 그래프에 의하면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는 10과목 이상의 교양 음악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학에 따라 동일 과목을 여러 분반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개설 과목 수의 많고 적음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개설 강좌가 많다는 것은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경희대와 성균관대를 제외한 10개 학교의 2008년과 2022년 개설 과목 수를 비교해 보면 6개 대학의 강좌 수가 2008학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는 2008년도에 비해 높은 증가율(각각 100%, 400%, 133%)을 보였다. 서울대의 경우 2009년 신설된 〈교양 연주〉과목이 2022학년도에는 7과목(합창, 색소폰 I·II, 가야금, 거문고, 단소, 해금)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 과목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²⁰⁾ 다수 대학(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에서 〈합창〉이 대표적인 교양 실기 교과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서울대의 실기 과목은 합창을 비롯하여 여러 국악기(가야금, 거문고, 단소, 해금)를 배울 수 있는 강좌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12개 대학 중 실기 과목의 비중(42%)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에서의 이 같은 ‘실기’ 관련 강좌의 증가는 기초 교양 교과목의 편성,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라 여겨진다.

서울대는 2002년 재학생들의 기초 교양 교육을 전담할 기초교육원(Faculty of Liberal Education)을 별도로 설립하여, 2014년 이후에는 기초 교양 교과과정을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 교양의 3영역으로 개정하여 운영해왔다. ‘실기’ 강좌는 ‘선택 교양’의 세부 과목에 ‘예술 실기’로 지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공감각적 예술적 체험을 통해 작품을 창조하는 자질과 감상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고 밝힌다.²¹⁾

일부 논문에서는 음악 관련 학과의 존재 여부가 교양 음악 과목 개설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였지만, 서울대의 경우처럼 최근 동향은 음악 관련 학과의 존재 여부 못지않게 교양 교육을 전담하는 ‘학부 대학’, ‘기초 교육원’ 등의 독자적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²²⁾ 예로서 동국대는 1과목이었던 교양 음악 과목이 2022학년도 5과목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

20) 그 밖에 2008학년도에 비해 ‘융합’ 주제 강좌 교과목, 〈음악과 사회〉, 〈음악속의 철학〉이 추가되었다.

21) <https://liberaledu.snu.ac.kr/node/75> [2023년 1월 10일 접속].

22) 나상미, “일반대학에서의 교양음악교육 실태조사연구(서울지역 중심으로),” 27; 박지연, “대학에서의 교양음악 교육 현황 및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48-51; 장지원, “21세기 대학 교양 음악수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188.

데, 그 이유는 특성화된 융복합 강좌 (오페라속 범죄학), <대중음악속의 경제학개론> 등이 다수의 타학과에 의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음악 관련 학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과목의 음악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고려대는 2014년 교양 교육원 소속 음악 전임 교수를 임용하였고, 이후 음악 관련 강좌의 개설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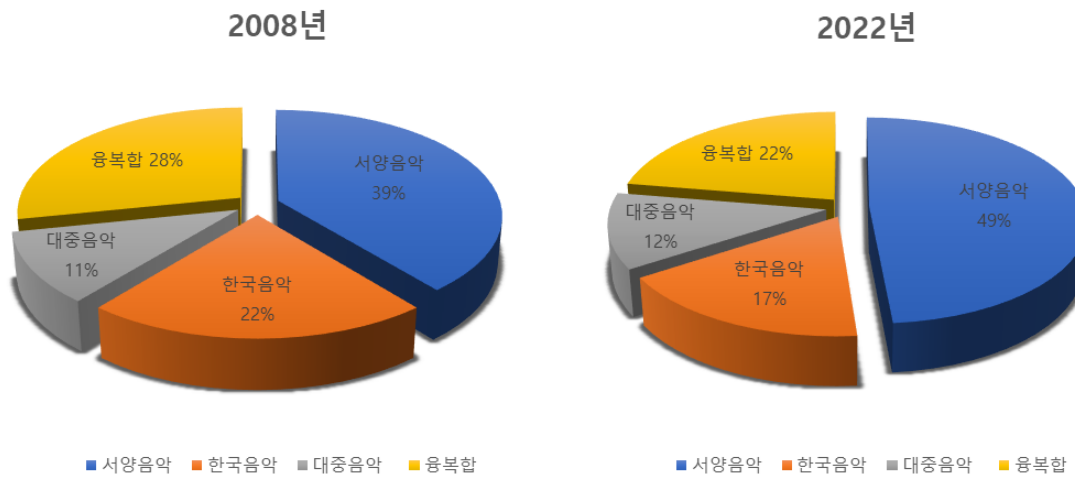
경희대는 전문적인 교양 교육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2011년 3월 교양 교육기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였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융합적 교육”을 비롯한 여러 정책과 시도가 “교양 교육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교양 교육에 대한 대학 사회의 인식을 변화 시켰다”고 명시하고 있다.²³⁾ 실제 경희대에서 개설된 교양 음악 과목과 강의 개요를 살펴보면, 음악과 타학문을 연계시킨 융복합 성격의 강좌가 38%를 차지하고, 실기 과목의 비중이 타대학에 비해 높으며(30%) 솔러가 제안한 예술적 능력·새로운 음악의 창조, 연주, 이해하고 반응하는 훈련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실기 강좌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12개 대학 중 유일하게 피아노, 클래식 기타, 실내악 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실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고, 모든 교양 음악 교과목이 3학점 구성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세대, 숙명여대, 한양대는 2008년에 비해 교양 음악 교과목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이들 3개 대학은 모두 음악대학이 존재한다. 각 대학마다 학제 개편 등 여러 이유로 교과목이 축소되었겠지만 수강 편람과 대학 요람의 자료를 통해 파악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숙명여대의 경우 2008년에는 <음악기초이론>, <서양음악의 이해>, <교양음악 감상>, <교양 합창> 등 음악대학 주관의 기초 과목이 개설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용과와 프랑스어과에서 주관하는 대중음악 및 실기 관련 강좌가 운영되고 있었다. 연세대는 2008년에 비해 개설 과목 수가 20% 축소되었는데, 2019년 ‘선택교양’이 ‘대학교양’으로 학제가 개편됨에 따라 3학점 시수의 교양 음악 과목은 유지하고, 2학점 교과목-<음악감상>(2분반), <음악의 기초이론>(2분반), <음악과 사상>-을 더 이상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에 비해 33% 개설 과목 축소를 보인 한양대는 과거 성악 관련 강좌 <독일가곡과 시>, <한국가곡의 이해>, <벨칸토 발성의 이론과 실제> 등이 전체 교양 교과목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주제의 불균형을 이루었으나 최근 적정 비율로 조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과목 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현재 성악 관련 강좌 대신 최근 성향을 반영하는 융복합 강좌가 다수 개설되었다. 요컨대, 음악 관련 학과의 유무보다는 대학의 교양 교육에 대한 인식, 방향성이 교양 교과목의 편성,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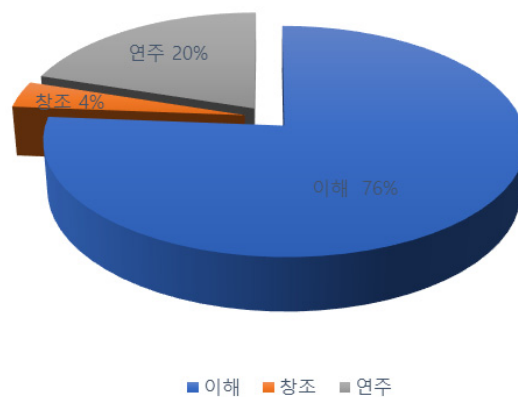
23) https://hc.khu.ac.kr/hc_kor/user/contents/view.do?menuNo=4300173 [2023년 4월 10일 접속].

2.3. 2008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교양 음악 과목 주제별 분류

본 절에서는 2008년과 2022년 개설된 교양 음악 과목은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려 한다. 개설된 교양 음악 과목의 주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서양음악, 한국음악, 대중음악, 융복합의 네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림 2>와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림 2> 2008년과 2022년 교양 음악 과목의 주제별 분류



<그림 3> 교양 음악 과목 분류:
술리의 독립적 음악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항목

〈그림 2〉 주제별 분류에 의하면 2008년과 2022년 모두 ‘서양 클래식 음악’이 약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나머지 영역(융복합, 한국음악, 대중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그림 2〉에서는 2008년과 2022년 간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각 영역별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3〉은 2022학년도 개설 강좌를, 슬러가 제안한 ‘예술적 능력’의 세부 목록에 의해 구분한 결과이다. 요르겐센은 음악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로서 개인이 음악의 다양성을 유지할 때 문화적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 제안한 바 있다. 대학마다 개설 과목이 늘어나고, 다루는 주제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교양 음악 과목이 여전히 서양 클래식 음악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림 3〉은 현재 교양 음악 교육은 이론의 ‘이해’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독립적 음악 능력은 이론과 실기 교육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갖출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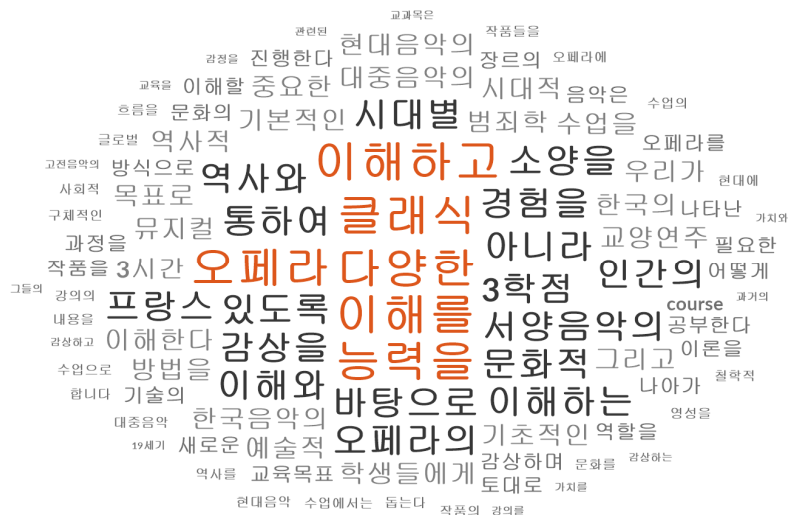
K-pop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고, 이제는 대학에서 대중음악 관련 강좌를 마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를 반영하듯 각 대학은 대중음악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점차 장르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융복합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과거에는 음악과 인문학의 융합이었다면 현재는 문학을 포함한 건강, 과학, 경제, 법 등으로 그 범위가 폭넓게 확대되었다. 타 학과 주관으로 신선한 주제의 융복합 강좌가 지속적으로 신설,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괄목한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2008학년도에 개설된 강좌가 과목명이나 커리큘럼의 변화 없이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양 강좌의 운영, 교과목 편성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서울 소재 12개 대학 음악 교양강좌 개요 분석

3.1. 강의 목표의 특성

서울 소재 12개 대학교에서 2022년에 개설된 음악 교양강좌의 개요서를 취합하여 음악 교양교육에 있어서 어떤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질적연구 소프트웨어 엔비보(NVIVO)를 활용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각기 다른 성향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 관리 또한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전체적인 방향을 단언하여 분석하기

는 쉽지 않다. 가령, 동국대의 경우, <오페라속 범죄학>은 경찰행정학부에서 개설하였으며 <대중음악속의 경제학개론>은 경제학과에서 개설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악 또는 예술관련 학과에서 개설 및 관리하고 있기에 그 목적과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한국 대학에서 음악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의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가늠하기에는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림 4>는 2022년 서울 소재 12개 대학 음악 교양강의 개요에서 ‘음악’ 또는 ‘수업’이 포함된 일반적인 단어 및 관용구를 제외하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 구름’(word cloud)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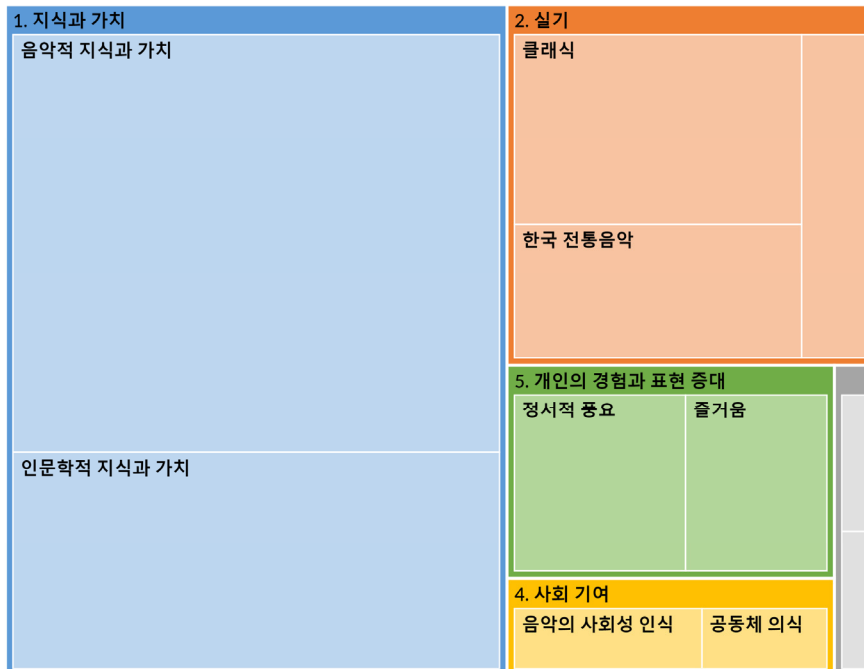


<그림 4> 2022년 서울 소재 12개 대학 음악 교양강의 개요 단어 구름

<그림 4>의 가운데에 큰 글씨로 나타난 단어가 많이 언급된 단어로서 교수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음악 교양교육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클래식’과 ‘오페라’를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이해’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는 ‘역사와’, ‘소양을’, ‘문화적’, ‘인간의’, ‘경험을’, 그리고 ‘감상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프랑스’와 ‘3학점’이 또한 언급된다. 강의개요 및 학습목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석하자면, 2022년 서울 소재 12개 대학에서는 서양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해 중심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양상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는 본론 2장 3절에서 논의한 <그림 2>와 <그림 3>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3.2. 강의개요의 코딩

구체적인 지향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교과목의 강의개요와 학습 목표를 코딩하였다. 이 때, 각 교과목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문구를 두 개씩 추출하였으며, 부득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서술된 개요서로 인하여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했으며, 교과목의 특성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문구 역시 제외했다.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가치를 요르겐센의 제안에 기초하여 (1) 지식과 가치 (2) 실습 및 실기 (3) 다양한 문화 유지 (4) 사회의 기여 (5) 개인의 경험 및 표현을 확대 등의 총 5가지로 구분하였다. 덧붙여, 각 항목에 따라 하위 항목을 구분하여 세분화시켰는데 ‘(1) 지식과 가치’는 ‘음악적 지식과 가치’와 ‘인문학적 지식과 가치’를 구분하였으며, ‘(2) 실기’는 장르에 따라 ‘클래식’, ‘한국 전통음악’, ‘대중음악’으로 구분하였고, ‘(4) 사회 기여’는 ‘음악의 사회성 인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하였으며, ‘(5) 개인의 경험과 표현 증대’는 ‘정서적 풍요’와 ‘즐거움’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3) 다양한 문화 유지’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하게 언급 빈도가 낮아서 하위 항목을 두지 않았다. 코딩의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나는데, 각 항목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그 중요도가 비례한다.



<그림 5> 2022년 서울 소재 12개 대학 음악 교양강의 개요의 코딩 결과

코딩 결과를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1) 지식과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특히 음악적 지식과 가치에 초점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3) 다양한 문화 유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의 단어구름에서 ‘다양한’이 가장 중심에 등장한 단어였던 것을 반추하자면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이 갖는 경험과 해석의 폭이 매우 상대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며(<그림 6> 참조), 세계음악을 다루는 교과목이 부족한 것과 직결된다.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에 연결된 단어나무(word tree) 중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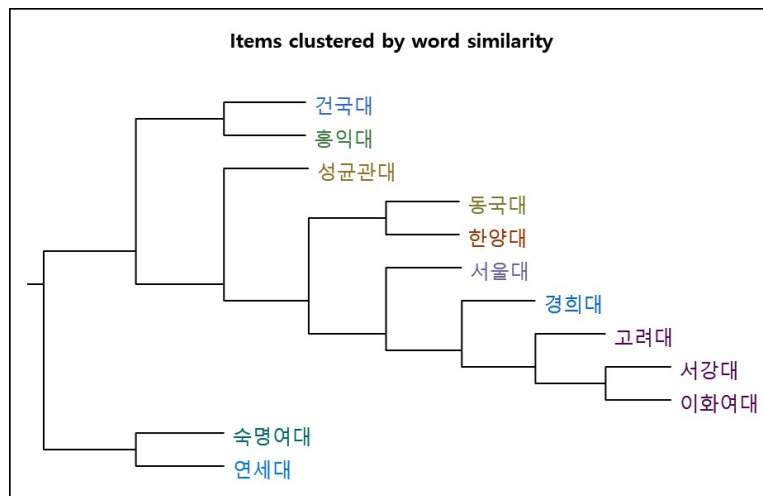
<그림 6> ‘다양한’이 등장한 맥락을 나타내는 단어나무

문화’와 연결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세계음악을 다루는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2개교(서강대, 서울대)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 인문학적 지식과 가치’에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비롯하여 범죄학, 경제학, 테크놀로지 및 융합적인 지식과 가치, 그리고 영성(종교적인 가치)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음악을 맥락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동시에 타 학문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실기’의 경우에는, 클래식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이 비슷한 비율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에 집중되어있는 양상이다. 흥미로운 점으로는 전반적으로 대중음악에 관한 교과목이 한국 전통음악 관련 교과목과 비슷한 비율로 개설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대중음악 작곡을 다루는 교과목이 개설된 것은 대중음악을 하위문화로 인식하려 했던 기존의 편견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류의 강한 영향이라고 해석되어진다.

3.3. 대학별 음악 교양교육의 성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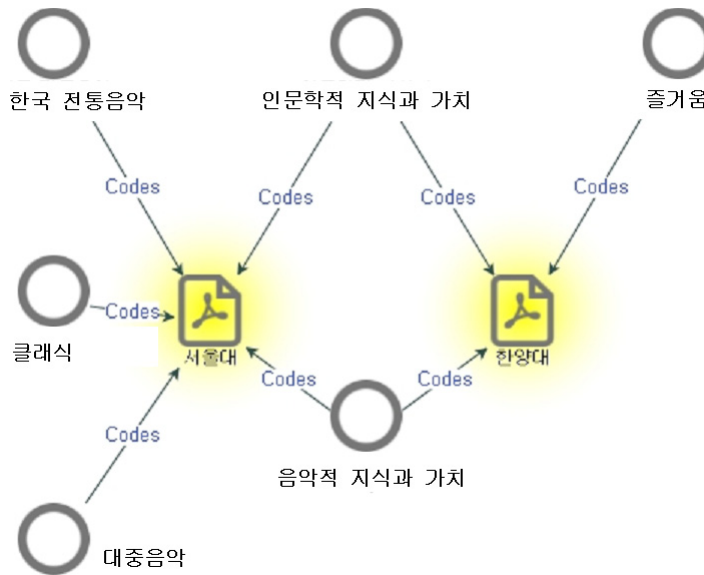
2022년 서울 소재 12개 대학에서 개설한 음악 교양교과목 강의개요에 사용된 단어의 유사점으로 분석한 학교 간의 관계도는 <그림 7>과 같이 드러났다. 도표로 보았을 때, 건국대와 홍익대의 음악 교양교과목의 성격이 매우 유사한 반면, 이 두 대학의 경우와 서강대 및 이화여대의 교과목 성격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건국대와 홍익대의 경우, 각각 3



<그림 7> 서울 소재 12개 대학의 2022년 음악 교양교육 목표의 관계성

개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2개의 서양 클래식 음악 교과목과 1개의 대중음악 과목으로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개요에 따르면, 홍익대의 <현대음악의 이해>는 대중음악을 다루고 있으며, <사운드와 컴퓨터 음악>은 서양 클래식 음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서강대는 1개의 서양 클래식 음악, 1개의 서양 대중음악, 1개의 세계음악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기에 비율적으로 1/3이 다르다는 점에서 홍익대 및 서강대의 경우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낙 적은 수의 교과목이 개설된 관계로 유사점보다 상이점이 두드러지게 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음악 교양교과목 개요서를 비교분석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점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어떤 점이 비교적 취약한지, 또는 어떤 점이 비교적 더 강조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 가령, 서울대와 한양대의 음악 교양교과목 개요서를 비교했을 때 <그림 8>과 같은 도표가 도출되었다.



<그림 8> 2022년 교양 음악 교과목 개요서 분석에 근거한 서울대와 한양대의 관계도

분석 결과는 강의 개요서의 서술방식과 연관되며, 교과목 자체의 성격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첫째, 한양대의 경우 한국 전통음악에 관한 교과목이 2개 개설되어 있지만 1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이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서울대의 경우 <World Music>(세계음악)이 영어강의 교과목인 탓에 영어로 강의 개요서가 작성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한양

대에서 개설되는 교양 교과목 개요서의 지향점이 전반적으로 인문학적 지식 및 내적 경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와 비교했을 때에 ‘클래식’ 또는 ‘한국 전통음악’ 등의 단어들에 코딩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울대의 경우 무려 14개의 교과목(7개의 이론, 7개의 실기)이 개설되었으며 게다가 실기 교과목의 경우는 강의 개요서에 음악적 카테고리가 부각되어 감지되었다. 특히 대중음악을 다루는 교과목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2개의 ‘색소폰’ 실기 교과목이 대중음악으로 코딩되어 부각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엔비보 비교 분석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와 한양대는 공통적으로 교양 음악 교과목에서 ‘인문학적 지식과 가치’와 ‘음악적 지식과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점으로 서울대에서는 클래식, 대중음악, 한국 전통음악 등의 모든 카테고리(영어강의 <세계음악>을 포함)의 음악을 전면에서 부각시키는 것에 비해 한양대에서는 ‘즐거움’이라는 개인적인 경험과 표현의 증대를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교양 음악교육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서울대의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과 표현의 증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한양대의 경우는 실기 교과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4. 결론

본 논문은 2022학년도 국내 교양 음악교육의 현황 연구를 목적으로 서울 소재 12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교양 음악 개설 강좌 수, 학점, 주제, 강의 목표 및 가치, 교수진의 지향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중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10개 대학교의 경우 2008학년도 개설 상황과 비교해 보았다.

2022학년도 개설 교과목 수는 대부분의 경우 2008년에 비해 비약적 증가를 보였다. 10과목 이상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도 3개교나 되었고, 특정 교과목을 여러 분반으로 나누어 운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설 강좌 수가 적은 대학도 있었다. 강좌 운영 방식은 대학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교양 교과목의 편성,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악 관련 학과의 유무 이외에 교양 교육을 전담하는 독자적 기관의 교양 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할, 방향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개설되기 시작한 융복합 과목의 경우, 과거에는 음악과 인문학의 융합에서 이제는 건강, 과학, 경제, 법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교양 음악 강좌의 주제별 분류는 여전히 대학 교양 음악 강좌가 ‘서양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는 행위에 치우쳐 있음을 나타낸다. 강의 개요서의 내용을 코딩한 결과 역시 맥을 같이한다. 2022학년도 서울 소재 12개 대학에서는 서양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해 중심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양상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지향점을 분석한 코딩 결과는 ‘음악적’ 지식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유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음악 강좌 및 융합 강좌가 개설되고는 있으나 서양 클래식 음악 영역 내에서의 다양함을 지향하는 것이지 세계음악, 비클래식 음악, 국악 등 음악의 영역을 확대한 다양함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양함’은 수강 대상자들이 음악을 경험하는 행위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교양 음악 강좌는 음악을 ‘이해’하는 행위에 맞춰져 있으며, 창조, 연주를 경험하는 실기과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교양 음악 교육이 수강생들에게 독립적 음악 능력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위해서 수강생들이 음악의 다양함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좌의 운영과 편성이 개선되기를 제안한다.

검색어

교양 음악 교육(Music Liberal Arts Education), 요르겐센(Estelle Jorgensen), 슈러(Scott Schuler), 엔비보(NVIVO), 독립적 음악 능력(Independent Music Literacy)

참고문헌

- 나상미. “일반대학에서의 교양음악교육 실태조사연구(서울지역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지연. “대학에서의 교양음악교육 현황 및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안성희. “코로나 19 사태로 바라본 음악대학 교육의 실태 보고-비대면 학습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20/3 (2020): 105-115.
- 이보림. “대학 교양교육을 위한 비대면 음악비평 교육프로그램 개발-음악과 언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1 (2021), 149-161.
- 이수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을 위한 온라인 음악교육 연구 고찰.” 『예술교육연구』 19/3 (2021): 183-200.
- 장지원. “21세기 대학 교양 음악수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10/3 (2012): 183-197.
- 정진원. “통합교과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음악지도에서의 의미 탐색.” 『음악교육연구』 34/1 (2008): 139-169.
- 최소희. “대학교양음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광주·전남지역의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Jorgensen, Estelle R. “The Aims of Music Education: A Preliminary Excursion.”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36/1 (2002): 31-49.
- Schuler, Scott C. “Music Education for Life: Five Guiding Principles for Music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97/3 (2011): 7-9.

인터넷 자료

- <https://liberaledu.snu.ac.kr/node/75>. 2023년 1월 10일 접속.
- https://hc.khu.ac.kr/hc_kor/user/contents/view.do?menuNo=4300173. 2023년 4월 10일 접속.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8300. 2022년 12월 23일 접속.

부록

〈부록 1〉 교양 음악과목의 주제별 분류

	2008년	2022년
서양음악	서양음악의 이해, 현대음악의 이해, 고전음악의 이해, 쉽게 듣는 서양오페라, 재미있는 현대음악, 음악감상, 음악사, 음악의 기초이론,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음악의 이해, 서양음악의 역사와 감상	클래식 음악여행, 일감호에서 듣는 클래식음악, 클래식 음악의 이해와 감상, 현대 음악의 이해, 낭만과 음악산책, 오페라의 세계, 기초음악이론, 중급음악이론, 음악즐기기, 내 인생의 클래식, 서양음악의 역사와 감상, 음악의 원리, 서양음악의 이해,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서양음악사, 영화로 보는 현대음악, 쉽게 듣는 서양오페라, 고전 음악의 이해, 현대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세계음악의 이해, 재즈의 역사, 대중음악, 대중음악의 이해	뮤지컬의 이해, 서양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세계음악, 프랑스뮤지컬이해, 대중음악의 이해
한국음악	한국음악의 이해, 판소리와 창극의 세계, 한국양악의 이해, 전통음악감상, 판소리 감상과 실제, 한국가곡의 이해, 국악의 이해, 한국음악의 역사와 감상	판소리의 이해, 한국음악의 세계, 한국음악의 이해, 한국음악개론, 국악의 이해, 전통음악감상
융복합	서양문명과 음악, 음악론 입문, 음악과 뉴미디어, 러시아문학과 오페라, 프랑스와 샹송, 독일가곡과 시, 음악창작과 컴퓨터, 아시아 음악문화, 음악의 미학적 이해, 소리문화와 인간, 음악치료의 입문, 음악치료학, 음악경영	대중음악으로 바라본 미국사회, 오페라속 범죄학, 대중음악속의 경제학개론, 세계음악과 문화의 이해, 음악과 사회, 음악속의 철학, 음악테크놀로지와 프로그래밍, 음악과 건강, 음악론 입문, K-Mooc: 음악과 과학/기술, 인간과 음악적 상상력, 영상과 음악, 사운드와 컴퓨터 음악
실기	대학합창, 단소실기와 감상, 벨칸토 발성의 이론과 실제, 이화클리블럼, 교회합창, 국악기 실습	기초음악작곡법, 합창음악과 발생법의 이해, 작곡실습 소리를 통한 가능성, 교양 합창연주, 교양 색소폰연주 1-2, 교양 가야금 연주, 교양 거문고 연주, 교양 단소 연주, 교양 해금 연주, 타악기 실습 기초 I-II, 교양합창, 연세대학합창, 대학 합창

〈부록 2〉 2022학년도 대학별 교양 음악과목 개설 현황

대학 (가나다순)	과목명 및 시수	과목수
건국대학교	클래식 음악여행 (2)-4분반 일감호에서 듣는 클래식음악 (1)-2분반 (2학기) 대중음악으로 바라본 미국사회 (2)	3
경희대학교	오케스트라의 오늘 (3)-1학기 작곡의 밑그림: 화성학 (3)-1학기 음악과 권력: 충돌 혹은 타협의 역사 (3)-1학기 다시 시작하는 피아노 랫슨 (3)-1학기 악기의 탄생: 동서양 음악의 문명사 (3)-2학기 호모무지쿠스: 음악으로 경계 넘나들기 (3)-2학기 대중문화와 음악 (3)-2학기 실내악: 음악적 얼굴이 살아있는 벼들의 음악 (3)-2학기 우리가락으로 만나는 세상 (3)-2학기 재즈음악의 이해와 감상 (3)-2학기 클래식 기타의 연주와 감상 (3)-2학기 클래식 음악 산책 (3)-2학기 합창의 재발견 (3)-2학기	13

대학 (가나다순)	과목명 및 시수	과목수
고려대학교	클래식 음악의 이해와 감상 (3)-1학기 현대 음악의 이해 (3)-2학기 낭만파 음악산책 (2) 오페라의 세계 (2) 기초음악이론 (2) 중급음악이론 (2) 기초음악작곡법 (2) 관소리의 이해 (2) 한국음악의 세계 (2) 합창음악과 발성법의 이해 (2)	10
동국대학교	음악즐기기 (3) 내 인생의 클래식 (2) 작곡 실습, 소리를 통한 기능성 (2) 오페라속 범죄학 (3) 대중음악속의 경제학개론 (3)-2학기	5
서강대학교	세계음악과 문화의 이해 (3)-1학기 뮤지컬의 이해 (3)-1학기 서양음악의 역사와 감상 (3)-2학기 서양대중음악의 이해-2학기 대중음악 (3): 영어강의-2학기	5
서울대학교	음악과 사회 (3)-3분반 음악속의 철학 (3) 음악론입문 (3)-2분반 음악의 원리 (3)-2분반 한국음악의 이해 (3) 서양음악의 이해 (3) 세계음악 (3)-영어강의 한국음악개론 (3)-영어강의 교양연주-가야금 (1) 교양연주-거문고 (1) 교양연주-단소 (1) 교양연주-색소폰 1-2 (1) 교양연주-해금 (1) 교양연주-합창 (1)	14
성균관대학교	대중음악의 이해 (3) 시문학과 예술가곡 (3) 음악의 이해 (3) 뮤지컬과 오페라 (3)	4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뮤지컬이해 (3)-2분반 (2학기) 타악실습기초 I (2) 타악실습기초 II (2)-2학기	3
이화여자대학교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3) 음악테크놀로지와 프로그래밍 (3) 서양음악의 이해 (3)-2분반 음악과 건강 (3) K-Mooc: 음악과 과학/기술 (3) 국악의 이해 (3)-1학기 교양합창 (3)-2분반	7

대학 (가나다순)	과목명 및 시수	과목수
연세대학교	서양음악사 (3) 영화로 보는 현대음악 (3) 대중음악의 이해 (3) 연세대학 합창 (1)	4
한양대학교	쉽게 듣는 서양오페라 (2) 고전 음악의 이해 (3)-2학기 인간과 음악적 상상력 (2) 현대음악의 이해 (2) 영상과 음악 (2) 전통음악감상 (한국학생 대상) 전통음악감상 (외국인대상) (2)-3분반 한국 음악의 세계 (2) 대학합창 (2)-2학기	8
홍익대학교	고전음악의 이해 (3)-3분반 현대음악의 이해 (3)-3분반 (사이버 강좌 1분반 포함) 사운드와 컴퓨터 음악 (3)-사이버강좌	3

A Study on the Liberal Arts Education of Music in 2022: Focusing on 12 Universities in Seoul

Jiyoung Park, Min-Jung Son

This paper selected 12 universities in Seoul and analyzed the opening status and course descrip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usic liberal arts in 2022. I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ning, the numbers and topics of the opening subjects were analyzed,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10 universities where the data were open to the public, the trend was measured compared to the data of 2008. In the case of universities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opening, it was shown that they apparently had the specific institution or subject in charge of liberal arts edu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rses were also directly related to the operation method of the institution and subje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bjects of music liberal arts, Western music accounted for almost half, while world music was insignificant, organizing the rest in the order of Korean music, popular music, and convergence. The results of class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rses based on Schuler's 'ability for artistic independence' showed that the theoretical aspect currently accounts for 76%, which lacks the aspect of performance and cre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tents of the course description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Jorgensen's five music education philosophies, applying the qualitative research software *NVIVO*. At this time, it is revealed as a limitation that the analysis results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ourse and the method of describing the course, and may not be the same as the actual content of the course. As a result of the study, knowledge and values, especially musical knowledge and values, are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practical skills, individual experience and expression, social contribution, and maintenance of various cultures.

2022학년도 교양 음악교육 실태 연구: 서울 소재 12개 대학을 중심으로

박지영, 손민정

본 논문은 2022학년도 교양 음악 과목의 현황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개설 현황과 강의개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개설 현황 분석에 있어서는 개설 과목의 수와 주제를 분석했으며, 특히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10개 대학의 경우에는 2008학년도 자료와 비교하여 시대적 추이를 가늠하고자 했다. 개설 과목이 현저히 증가한 대학의 경우에는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주체가 뚜렷함을 보여 주었으며, 개설 과목의 성격 역시 담당 기관 및 주체의 운영 방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양 음악 과목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서양음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음악, 대중음악, 융복합의 순서로 그 나머지를 구성하며 세계음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러의 ‘독립적 음악 능력’에 기초하여 과목의 성격을 분류한 결과는 현재 이론적인 측면이 76%를 차지함으로써 연주와 창조의 측면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강의 개요의 내용을 요르겐슨의 다섯 가지 음악 교육철학에 기초하여 질적연구 소프트웨어 엔비보로 코딩 분석하였다. 이때, 강의의 성격 및 강의개요서 서술방식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강의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한계로 밝힌다. 연구의 결과, 지식과 가치, 특히 음악적 지식과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실기 능력의 전수, 개인의 경험과 표현의 증대, 사회적 기여, 다양한 문화의 유지의 순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투고일자: 2023년 4월 30일

심사일자: 2023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5월 19일